



성가복지병원 소식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2020년 / 특집호
발행처·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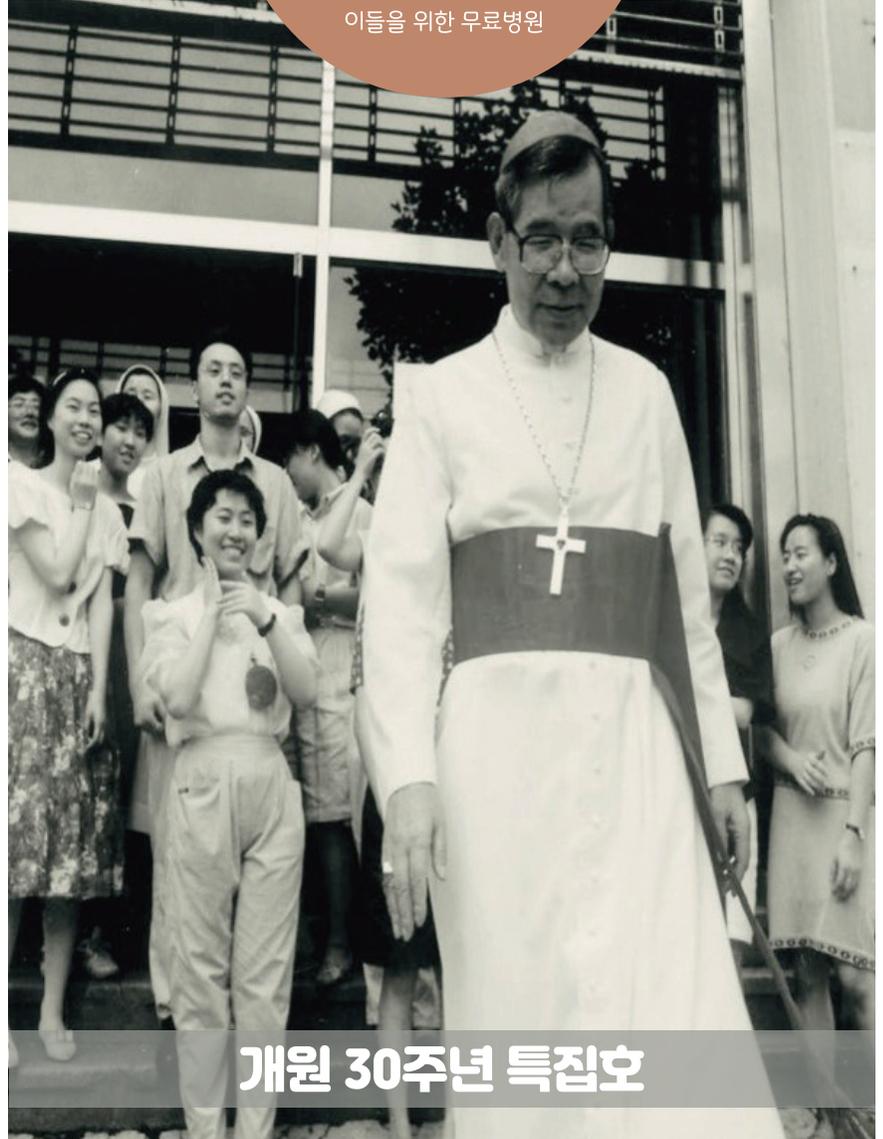
카톡에서 **성가복지병원** 채널 추가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TALK → Q → +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Ch **성가복지병원**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성가복지병원의 일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원 30주년 특집호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Holyfamily Welfare Hospital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대표전화 02.940.1500/ 팩스 02.940.1545 후원회 02.940.1501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주님!

성가복지병원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보금자리로 시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저희가 늘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들을

바로 예수님으로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든지

변덕스러운 갖가지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 줌으로써

“당신께 봉사함은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냉대와 무례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예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높은 소명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해 주시는 것임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소서

성가복지병원을 도와주시는 모든 은인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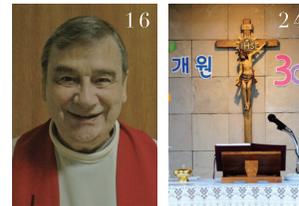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축복과 사랑으로 감사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Contents 2020



표지
 - 성가복지병원 초대 이사장
 고김수환 추기경님
 (1991.7.23 개원1주년 기념)

성가복지병원 소개

04 설립목적 · 운영방침 · 사업안내 · 운영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30주년 기념사 & 축사

07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10 병원장 김 아모스 수녀

13 의무원장 강주원

16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임경명 임마누엘 신부

19 코트디부아르 주한대사 부인 사라빌레

사진으로 보는 성가복지병원 30년 역사

강생의 자리

28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알고 찾아 오셨어요?_ 사회사업과

30 형제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_ 동두천 베타니아(임 안토니오 수녀)

33 코로나19도 비켜간,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_ 오마이뉴스 기사 발췌

나눔의 기쁨

40 복지병원이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다!_ 봉사자 김혜자(소화테레사)

44 행복은 열린 문_ 노동준(안토니오) 신부

47 저분은 주님이시다. 당신께 봉사함은 참으로 기쁩니다_ 시설과 송재경(대건안드레아)

감사의 마음

50 세례성사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_ 환자 민○○(마르첼리노)

54 체험 나눔_ 간호사 박혜선(에디타)

56 최고의 레스토랑 수녀님 감사합니다_ 퇴원환자 손○○

60 5병동 편지

성가 소식

알려드립니다

발행년 2020년 | 발행처 성가복지병원
 전화 02.940.1500(대)
 주소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하월곡동)
 홈페이지 www.sgbokji.or.kr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



설립 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정신을 지향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운영 방침



성가소비녀회 정신을 실천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의료서비스 (입원, 외래)는 무료로 한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사회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운영 현황

직원 현황

01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 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자원봉사 활동 분야

02

-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 차량(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상담(정서지원)
- 영양과(설거지, 배식 등)
- 호스피스

지원

03

정부 지원 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병상수

04

- 2병동(21실, 72병상)
- 5층(8실, 33병상) : 510호, 호스피스 병동
- 6층(13실, 39병상) : 단기 환자 병동

진료과목

05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영상의학과 (내·외과를 제외한 과는 자원봉사 의사들이 진료함)

사업 안내

- 진료(외래, 입원)
- 호스피스
- 타 기관 연계
- 무료급식소(매주 화·토요일 점심)



입원 & 외래진료

■ 대상

차상위 계층,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호스피스(암보험, 생명보험 가입자 제외)

■ 서류 준비

의사 진료 소견서(타 병원 입원환자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선별 방법

1. 외래환자의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회사업과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환자의 경우

사회사업과와 전화상담, 직접 방문을 통해 환자 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상담하신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9:00~오후 4:30(월·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사회사업과 전화 02) 940-1561~3 / 팩스 02) 940-1535

■ 외래 진료시간

홈페이지(<http://www.sgbokji.or.kr/>),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xnzFqT)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복지병원 30주년을 기념하며

성가소비녀회 총장_ 이 프리스카 수녀

2020년은 복지병원 설립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하느님 섭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가 낳고 있는 절박한 이들이 찾아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숙을 경축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중요한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사마리아 여인숙입니다.

후원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복지병원은 참 특별한 '하느님의 일터'입니다.

후원자, 봉사자, 직원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는 성삼위 하느님을 닮은 구조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 성자는 성부를 향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세 위는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위격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이 세 위격이 각기 다른 위격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이 발생합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이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 주변에 머무는 이들을 중심으로, 마치 삼위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돌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의 하느님이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듯이 후원자들, 봉사자들, 직원들이 움직이는 곳에 사랑을 낳는 특별한 곳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찰’입니다.

우리 자신을, 공동체를, 사회를, 지구를, 우주를 돌아보도록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돌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곳 역시 이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병원을 폐쇄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과연 이 방법이 복지병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동시에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을 살펴보았지요.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이 과연 이 병원의 주인이었는가? 그들이 주역으로서 환대를 받

았는가? 아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떠나 하느님께서 잊지 않고 돌보시는 이들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복지병원 재편 작업, 가깝게는 코로나 역병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던져진 물음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물음들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를, 바탕을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저는 복지병원이 특별한 일터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삼위 하느님의 신비인 사랑이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날마다 발견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성가복지병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높이만큼 짙고 넓게 드리워지는 그들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 그 그들을 품어안고 함께 가고자 하는 곳, 그곳에서는 세상의 일터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하

느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는 곳, 그래서 하느님을 날마다 만나는 곳이라는 것, 이것이 복지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복지병원의 존재 이유는 곧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가복지병원이 참 특별한 하느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일터로 초대받은 후원자, 봉사자, 직원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느님을 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총의 때이다



병원장_ 김 아모스 수녀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루카 5,4)

당신이 시작하신 성가복지병원의 30년_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함께하여 주신 하느님, 개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감사와 희망의 마음으로 문을 열었으나,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어떠한 계획이나 일도 순식간에 멈추었습니다.

멈춤으로 인한 돌아봄의 시간들 안에서 저는 3가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있기까지 주님의 일을 함께하여 주신 소중한 직원분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전환의 시대에 성가복지병원에 요청하심이 무엇일까? 수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몸짓들이 나의 부족함 속에서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니,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며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성가복지병원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자원봉사자분들, 예기치 못한 후원금을 보내 주시며 힘내라고 하시는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깊은 애정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이 바로 은총의 때이며, 위기가 바로 기회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깨어있게 하였습니다.

수도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님은 ‘주님의 일을 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성가수녀원을 시작’한 것이라 하셨는데, 성가복지병원의 출발도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수도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무료진료’를 통한 ‘사랑 나눔’을 시작한 것이, 다시금 상호 간 깊은 신뢰로 첫 출발 때의 마음이 되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코로나 직격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세상의 무서움과 한국 사회의 실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사람들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래진료 중단을 두 번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절박한 이들에게 막막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약하나마, 생명을 다루는 이곳에서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자, 기다려주자, 이곳이 마지막 보루이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병원이니까, 하고 다짐해봅니다.

생의 마지막 입원을 이곳으로 하게 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모멸과 치욕을 온몸으로 감당해내고 때론 알 수 없는 무의미와 끝

까지 사투를 벌이는 운명을 만나면서, 그냥 그분들이 겪어온 삶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쏟아내고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가, 성가복지병원이. 나머지는 하느님의 몫이며, 그분께서 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아픈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말처럼 쉽고 간단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일상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냄 또한. 그러므로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루카 5.4) 던집시다.

환우들과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환우들에게 진심 어린 상담으로 사랑을 전하기, 동료의 작은 선형 칭찬하기,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기, 솔직담백하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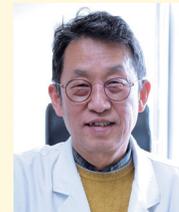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성가복지병원이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환우들 누구나 문을 두드리고 올 수 있는 열린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르나 성가복지병원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까지 ‘저분은 주님이시다.’ (요한 21,7)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절박한 이들에게 열려있는 병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를 믿고, ‘강생의 자리’인 성가복지병원에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힘차게 발을 내디뎌 봅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분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30년 그 이상의 미래를 향하여



의무원장_ 강주원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정신을 지향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0년 7월 23일에 무료병원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원 운영의 변화도 있었지만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무의무탁하고 소외된 이웃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30년이란 세월을 끈기있게 견디어 왔다. 이것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신 하느님과 수녀님, 후원자, 봉사자, 직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3년의 봉사 기간을 합쳐 12년을 성가복지병원과 함께 해왔다. 성가복지병원의 새 식구가 된 지가 엿그제 같은데 거의 30년의 절반을 이곳에서 생활해 왔다. 전문의가 되어 의사 생활의 삼분의 일은 성가복지병원과 같이 한 셈이 되니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을 보이셨고 또한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기에 환우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것이 전부라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환우 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생각했다. 하지만 도움을 주려고만 했을 뿐 타인의 도움을 받는 환우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으며 예수님 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환우 분들을 돕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봉사자 한 분은 기거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작했던 쉼터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숙식한 경험, 환우들의 세례식 때 대부가 되어주고 노숙을 하는 환우를 찾아 지하철 역사를 찾거나, 환우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 종묘, 을지로 등을 다니며 그들의 생활사를 조사하던 경험들에 대해 말씀해 주었다. 그분은 좋은 직장, 높은 직위를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부러웠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환우 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많은 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환우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어 환우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다.

사람의 나이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한다. 이는 <논어>에 나온 말로 “스스로 주관을 확고히 세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뜻이다. 우리 병원이 서른 살이 되었다. 병원의 설립 목적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며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며 나아갈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등불 역할의 무료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를 책임질 사람은 잡초를 가지고도 먹을 것을 만들어 내고 인류를 망칠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도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잡초를 가지고도 먹을 것을 환우들에게 줄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낄 것이며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30년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시편 34장 5절)



성가복지병원 30주년 미사 강론



파리의방전교회 한국지부장
임경명 임마누엘 신부

오늘 우리는 성가복지병원 30주년을 맞이 하였지만 우리 마음은 약간 슬프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에 봉사자들과 성가병원 후원자들과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이런 행사 보내시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 동안에 그들을 잊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녀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미사와 행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병원에서 일하셨고, 여러분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감사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미사 올 때 미아역에서 버스를 타는데 미아사거리역에 도착할 때 버스 방송이 '다음 정류장은 성가복지병원'이라고 알려 줍니다. 멋진 소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가복지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복지병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사고나 병이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가복지병원이 30년 전에 생겼고, 그 모든 약한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아 옵니다. 이 병원은 그동안 그들의 병원이 되었고 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성가복지병원에 수녀님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의사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한 봉사자,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외된 형제들과 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치유를 하고 있고, 늘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가치가 더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가복지병원을 운영 하였던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마태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이하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30년 동안 성가복지병원은 신앙의 기적, 희망의 기적, 사랑의 기적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녀님들, 의사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직원들과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은 다 같이 그런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능력, 기술, 미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성가복지병원 30주년을 축하하며

코트디부아르 주한대사 부인
사라빌레(Sarah Bile)

성가복지병원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코스트(코트디부아르) 주한대사 부인 사라 빌레(Sarah Bile)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6년 되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외국인 국제 성당에 다니면서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신자들과 우정을 나누고 지내는데 그곳에서 사목하시는 손 세실리아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은 제가 성당에서 자주 만나 함께 활동하는 놀라운 분들 중의 한 분이며 아주 관대하고 좋으십니다. 2년 전에 수녀님께서 사회에서 소외된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해 보자고 초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운 활동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Holy Family Hospital on it's 30th anniversary and wish you all continued growth and success for many years to come. I am Sarah Bile, wife of the Ambassador of Cote d'Ivoire in Korea, I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six years, I met Sister

Cecilia Son, a generous person doing pastoral work at the Catholic International Parish in Hannam-dong where I attend church and have built many friendships with church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Sister Cecilia is one of the amazing people working at the church with whom I often interact. Two years ago she invited me to visit the Holy Family Hospital, telling me that they take care of the lonely and abandoned poor people. She encouraged me also to become part of the effort after witnessing the great work being done by the hospital workers.

저는 기꺼이 이 초대에 응해서 수녀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조직과 후원자들의 기부만으로 병원 운영이 잘 되어가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이 병원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있는 ‘서울대사부인회’(ASAS, the Ambassador Spouse Association of Seoul) 모임에서 저의 체험을 나누었더니 가까이 지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주한 대사 부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분들과 함께 환자들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위로와 존중을 받으면서 활기를 되찾는 것이 저희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뜻깊고 행복한 체험을 했고, 우리 개인을 넘어 ASAS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일에 동참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I happily accepted her invitation and I have to say that my visit was most memorable due to the hospital's impeccable organization and operation with only the sponsor donations. Truly admirable are the medical staff and volunteers who dedicate themselves to the people in need treating them as they would treat Jesus. Most of all it was beautiful to see the abandoned people were happy being helped at the hospital. Therefore, I shared my experiences with ASAS (The Ambassador Spouse Association of Seoul) where I am a member. Some of my close friends, the wives of other nations' ambassadors, were also interested in volunteering, and we visited patients together on several occasions. Our hearts were deeply moved because through this hospital the lives of many patients turned around through being respected and comforted. We have meaningful and happy



주한외교대사부인협회(ASAS)가 주최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왼쪽에서 두 번째 사라빌레(Sarah Bile))

성가복지병원의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과
하나 되어 아낌없는
정성을 보여주신 것은
하느님의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experiences being united beyond religion and nationality. As such, we decided to participate in this charity as ASAS rather than just as individuals.

ASAS란 주한대사 부인들이 조직한 협회인데 회원 국가 상호 간의 문화교류와 한국인들에게도 회원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바자회와 모금운동을 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ASAS는 성가복지병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할 것을 결정하여 K옥션 갤러리에서 바자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그린 소박한 그림들을 전시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기증받은 특산품들도 함께 경매에 부쳤습니다. 결과 놀랍게도 5백만 원이 모였습니다. 전시품을 사 주신 많은 분들 역시 성가복지병원의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과 하나 되어 아낌없는 정성을 보여주신 것은 하느님의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ASAS is an organization started by

the foreign Ambassador's wives living in South Korea whose aim is to share individual members' cultures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Korean population. Additionally, we strive to help the poor, especially children through various ways and activities including holding bazaars. In 2019, the members of ASAS agreed to raise funds for the Holy Family Hospital by organizing an art bazaar and an exhibition at the K Auction Gallery. We auctioned our members' simple drawings and also the specialties donated by several nation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raise an amazing 5,000,000 Won. It was a huge blessing from God because many people bought these items with generous hearts, being united with the loving and most sincere support of the Holy Family Hospital.

저희는 성가복지병원에 아주 기쁘게 협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성가복지병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이정표적인 해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봉사하고 돌보는 일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We are extremely happy to collaborate with the Holy Family Hospital and strongly believe this partnership is destined to last far into the future. It is a remarkable milestone for the Holy Family Hospital to be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I wish you to glorify God continuously through serving and caring for the people in need more successfully going forward.

사진으로 보는 성가복지병원 30년 역사

SINCE 1990 30 YEARS

1958.08.05



성가의원 진료소 시작
(현 길음동 성당 건물)

1962.08.01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원

1970.07.09



병원 이전 병원 축성식
(현재 자리)

1970.07.09



접수 창구



진료 모습



외래 병동



1990~2006



초대 의무원장 **故 김성곤**

1990~1995



초대 병원장 민행자 수녀

1990~2009



초대 이사장
故 김수환추기경

1990.0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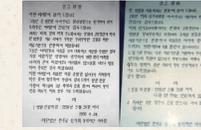
성가병원에서
성가복지병원으로 변경

1990.07.23



성가병원 개원
(무료진료 시작)

1990.05.31



유료병원 진료마감

1989.11.01



성가병원 전환연구 시작

1990.09.18



접수 창구

1991.07.23



개원 1주년 감사미사



외래 진료



입원 병동

1992.08.24



호스피스 병동 개설

1995.12.08



'שמטר' 축복식

1996.10.28



제1회 후원자 만남의 날
(前서울 북공업고등학교)

2020.07.23



개원 30주년

2018.04.26~30



제2차 필리핀 의료봉사

2017.11.10~13



제3차 필리핀 의료봉사

2015.07.23



개원 25주년

2007.02.09



제15차 세계병자의 날
(교황특사 방문 해베르로자 바리안 추기경)

2005.10.09



개원 15주년 기념
(동성 고등학교 강당)

2000.09.24



개원 10주년 기념
(동성 고등학교 강당)

1998.04.13



무료 급식소 개설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거리두기 미사참여



개원30주년 기념행사
(2020.07.23)



성가복지병원이 30년 동안 무료진료와
사랑나눔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후원자, 봉사자,
직원분들과 성가소비녀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후원단체 감사패 수여 :
[녹십자의료재단], [정명약품]



20년 근속상 : 박해선(간호사),
10년 근속상 : 박용건(내과과장)



모범 직원상 : 송재경(시설과),
임정수(영양사)



강생의 자리

“가난함과 가난한 이,
미소한 이들을 사랑하시오.”

-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알고 찾아 오셨어요?”

사회사업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묻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다양하다.

성가복지병원은 다양한 삶의 사연을 품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다. 삶의 굴곡만큼 병원을 찾는 과정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외래 내원객은 월평균 2,600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를 통해 성가복지병원을 찾게 된다.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는 성가복지병원에 대한 소문이 알음알음 퍼져나가 외래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반면 입원환자

들의 경우는 특정 기관들을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타 병원(2차, 3차)의 진료협력 센터를 통해서 의뢰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방임된 상태로 생활하다가 119에 신고되어 2,3차 병원에 입원했으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호스피스를 위한 암 환자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 환자들 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그들만의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병원을 알게 되는 통로는 주변 지인들의 소

개가 가장 많고, 민간 외국인 지원 센터 등을 통해서 의뢰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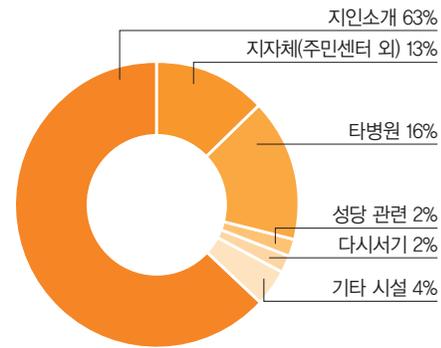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 환자들은 좀 더 다양한 통로로 내원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지자체(동, 주민센터 등)와 노숙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시 서기 종합지원센터’의 소개로 찾아오는 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의 독거노인, 고시원, 쪽방 등지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돌볼 가족, 지인이 없는 분들은 동·주민센

터나 지자체의 복지 실무자들을 통한 의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성가복지병원 봉사자들의 소개 또는 성당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경찰서, 구치소 등에서 긴급 의뢰 오는 경우들도 약 6% 정도가 된다.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친분도 없고 오히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나귀에 태워 여관방에 데리고 가 치료를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우리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변의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형제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

동두천 베타니아_ 임안토니오 수녀

“이집트로 피신하는 나자렛 성가정은 모든 난민 가정의 원형이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공포나 박해, 빈곤 때문에 그들의 고향,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가까운 벗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온갖 이민과 난민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형이며 보호자이다.”

비오 12세의 교황령 「이민 가정」(Exsul Familia, 1952.8.1) 서문

헤로데의 박해로 인하여 강제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주민’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말라하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나그네이시며, 감옥에 갇히신 예

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한다.

동두천 베타니아는 2018년 2월 17일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집을 공유하며 그들의 긴급한 요청(거주권, 생존권)에 응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차별, 무시, 배제, 편견으로 얼룩진 사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생계, 의료 지원을 통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행한다.

또한 방문 사도직을 통해 이주민들의 아동과 가정, 난민 가정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상담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가정복지도 꾀하고 있다.

난민들은 난민캠프나 고국에서 떠날 때의 심리적 불안정감, 우울

증, 불면증이 있다. 취업의 어려움과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한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책임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 육체적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을 수시로 성가복지병원에 모시고 간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정치적인 이슈로 대정부 저항 운동 중 군인이 쏜 총알이 한쪽 눈을 관통하여 의안을 한 분이다. 의안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에 성가복지병원 안과에 모시고 갔다. 사회사업과와 연계하고, 안과 선생님의 소개로 의안을 직접 제작하는 곳으로 가서 교체하였다. 비용은 성가복지병원에서 지원해 주었다. 새로운 의안을 한 그는 “낯선 곳에 준비 없이 들어와 외롭고 두려움에 싸여 있었는데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병원이 있어 따뜻하게 맞아주고, 치료해 주신 분들에

게 형제애를 느낀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 같다”라며 그분의 눈가에 맺혀진 눈물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성가복지병원은 이들에게 현대의 자리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 분이 있다. 그분은 부유한 삶을 살아왔지만, 힌두교와 무슬림과의 충돌로 인하여 한국으로 피신했고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경찰과 함께 쉼터로 오게 되었다. 일주일을 지내다 보니 이분이 알코올의존자임을 알게 되었



다. 불안 장애가 있었고 약간의 금단증상도 감지할 수 있었다. 쉼터에는 더는 머물 수가 없게 되어 다른 곳을 알아보았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알코올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우리는 이분을 성가복지병원으로 모셔 갔다. 내과 서과장님의 진료 후 2주간 동안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동시에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은 한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성가복지병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공동체에서 봉사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분은 병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치유 손길에서 너그러움과 온정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과 희망이 되어 준 성가복지병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성가복지병원을 찾는 이들을 통해 알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형제자매로 알아 보아야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더욱 더 정의로운 사회, 더욱 형제적인 세상, 그리고 복음에 따라 더욱 열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여정에 도움의 손길로 형제적 연대로 헌신하며 온 힘을 쏟는 봉사자, 직원, 의료진 그리고 수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도 비켜간,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

오마이뉴스 기사 발췌

지난 4월 [한국잡지협회]로부터 성가복지병원 취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1년 동안 봉사했던 취재기자 이효미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가복지병원’이 가장 먼저 떠올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병원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문 대신 병원장 김 아모스 수녀님과 강주원 의무원장님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가복지병원의 상세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이 글은 5월 5일 <오마이뉴스>+사는이야기' 섹션에 메인으로 채택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omn.kr/1nh92>

갈 곳 없는 환자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학교는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학원과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장소는 우선 폐쇄되고 방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성가복지병원에도 지자체의 진료 중단 권고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한 달 휴원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진료 중단 등의 권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무료로 진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병원은 존폐 위기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죠. 선제적 조치로 병원 문을 잠시 닫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추이를 지켜보며 방역 등 대비책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간 안에 약을 꼭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 있어 기간은 한 달로 정했습니다.”

한 달간의 진료 중단을 결정하며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고혈압, 당뇨 등 약을 장기간 꾸준히 먹어야 하는 환자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관리였다. 본래 2주 치씩 처방하던 약은 중단 전, 마지막 진료 때 한 달 치를 챙겨줬다. 건강관리 지침도 꼼꼼히 알려주었다. 진료는 중단했지만 직원들은 계속 출근해서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화하면 답을 해주고 근처에 갈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안내했다.



“자체 결정에 의한 진료 중단이었기 때문에 준비와 환자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 다행히 중단 기간 큰 문제도 없었고요. 다만 코로나19 이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보호자 면회가 어렵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말기 암 환자 등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인데 가족을 만날 수 없으

니까요. 가족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보호자가 드나들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면 큰일이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주원 의무원장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처럼,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전한 면회 수칙, 매뉴얼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무조건 무료로’ 병원 운영에 대한 그들의 신념



“코로나19 사태 이후 후원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마스크와 소독제를 후원해 병동에 배치하고 환자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감사하게도 환자와 보호자가 예방수칙을 지키는 데 협조적이었고요. 전국적으로 방역물품 수급이 어려웠으니 의료진 방호복은 아예 없었고 마스크는 충분하지 않았죠.

진료를 재개하면서 병원 입구 마당에서 모든 방문자의 발열 체크를 하고, 이동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걸려졌다고 봅니다. 의심 환자는 근처 보건소로 보내고,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입원시켰습니다. 타 병원에서 온 입원 환자는 무조건 3주간 1인실에 격리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진료재개 후 성가복지병원을 찾는 환자들

진료를 재개한 후 지금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환자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협조와 희생이 컸다.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일렀다. 퇴근 후 개인 용무로 다른 지역이나 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했고 직원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게 했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오는 병원이기에 성가복지병원의 방역이 풀리면 환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래 봉사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사자 없이 직원 인력만으로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봉사자에게 전화, 문자를 드려 봉사가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 의료 봉사자는 각자 병원 업무를 마치고 와서 봉사하셨거든요. 그분들도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봉사자는 직접 찾아와 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봉사자가 없어 힘든 것보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난 30년간 무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적은 금액이냐마 진료비를 받고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묻자, “없다”라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설립 목적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서 무료 복지병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작년에 운영 주체인 ‘성가소비녀회’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변화하는 복지정책과 사회 인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했죠.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의 조언을 받고 관련 TF팀도 만들었습니다. 직원, 외국인을 포함한 환자, 자원봉사자, 수도권회 회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공공의료 서비스와 보험 제도가 있어도 우리 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절박한 이들을 위해서요. 공공병원과 동사무소의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건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우리 병원을 찾는 이들은 의료보험 체납자, 노숙인, 차상위계층, 외국인 노동자이거든요. 공공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분도 있고요.”

‘비밀 언덕’이 되어주다

성가복지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 병원을 ‘비밀 언덕’이라고 표현한다. 의료진과 직원, 봉사자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준다”, “사람으로 대접해 줘 고맙다”, “내가 유일하게 큰소리칠 수 있는 곳”이라고 자주 말한다. 병원장 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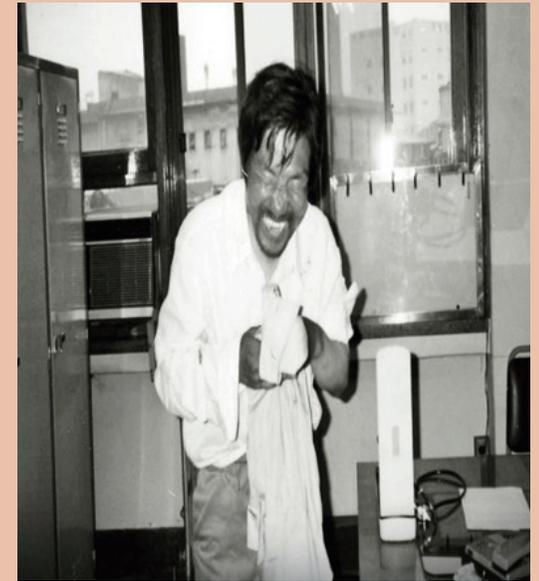
모스 수녀는 그것이 바로 이 병원이 필요한 이유이며 존재 의미라고 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진료 협조를 의뢰하면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바로 받아주는 장점도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한 환자는 달라진 장례법에 따라 가까운 장례시설에 연계한다. 무연고자는 관내 고려대 안암 병원에 시신을 안치한다. 노숙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돕고, 무연고자의 가족을 찾는 일도 성가소비녀회 소속 수녀들의 일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놨지만 이 시기를 바탕 삼아 함께 살아갈 방안을 찾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화로운 일상을 곧 되찾아 다시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자, 봉사자, 후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두렵지만 병원에 오는 모든 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강주원 의무원장과 병원장 김 아모스 수녀



나눔의 기쁨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마태25,40 -

복지병원이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다!

봉사자_ 김혜자(소화테레사)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봉사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봉사자분들의 빈자리와 소중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 뵈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봉사자 한 분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오늘 이렇게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요.

Q 코로나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봉사도 못 나오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당에도 가지 못하고, 노인 일자리도 모두 중단되고, 봉사도 못하게 되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갈 곳이 없었어요.

Q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봉사자분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많이 허전하고 보고 싶었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저도 성가복지병원이 많이 그리웠어요.

Q 저희 병원에서 언제부터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마 98년도쯤인 것 같아요. 길음동 성당에서 레지오를 하면

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해야 된 대서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직장을 다녀서 일요일만 봉사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일주일에 세 번 오고 있었지요. 성당 청소, 주방 봉사를 한지 거진 20년이 넘었네요.

Q 정말 오랫동안 성가복지병원과 함께 하셨네요. 재작년에 우수 봉사자 상도 받으셨지요?

네. 제가 세례도 늦은 나이에 받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봉사담당 수녀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 주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말이에요.

Q 늘 한결같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를 통해 체험했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노숙인들이 병원에 많이 왔었잖아요?

거친 말도 많이 하고, 수녀님들한테 못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곤 했어요. 그런데도 이곳에 계시는 수녀님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지내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죠. 이게 뭐가... 했어요. 어느 날 수녀님 한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예수님 이세요.'

아... 수녀님들은 뭐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Q 저희 병원 엘리베이터 위에도 그 문구가 있지요.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어떤 환자분은 이곳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본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나를 보고 인사도 하시고, '자매님'하고 정답게 불

러주는데...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에서 '아... 여기가 천국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병원이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다!'

Q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소화테레사 자매님의 마음도 변화된 거네요~

그렇지요. (^) 이곳이 이제는 저희 집 같아요.

Q 자매님의 삶에서 신앙생활과 봉사의 삶이 늘 함께였던 것 같아요.

신앙을 늦게 알아서 모르는 것이 참 많았는데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하면서 신앙도 키울 수 있었고, 다른 많은 것도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명동 성당에서 십자가길 하시면서 언제 또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나를 언제 불러 주시는지... 하느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Q 올해 성가복지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으면서 봉사자, 후원자, 많은 은인 분들과 함께 감사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서 아주 소박하게 감사 미사, 기념식만 봉헌할 수 있었어요.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편지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가 없거나 옛날 주소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우리 다 함께 모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주위에서 복지병원 언제 가나~ 하고 이야기하는 분

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봉사는 못하게 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라도 하고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Q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언젠가는 꼭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겠죠?

그럼요... 많아야 올하겠지요~ 설마...

Q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성가복지병원에 와서 수녀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2018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42주년' 우수 봉사자상 수상(왼쪽에서 두 번째_ 김혜자)

행복은 열린 문

서울대학교_노동준 안토니오 신부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은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우선 성가복지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0년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기쁨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성가복지병원 제5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제를 준비하는 신학과 2년을 마치고 또 2년의 군 생활을 마친 저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아름다운 호스피스 병동의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한 상상을 그렸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

는 환자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는 가족들, 이들을 기도와 봉사로 동반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제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밋빛 미래가 그러하듯, 저의 예상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병동에 들어가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호스피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차분히 앉아 환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상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면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자세를 옮겨주고, 대소변을 치우고 나면 녹초가 되어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서 환자들

의 손을 잡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그냥 주저앉아 지친 다리를 쉬게 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예상과는 다른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 생활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분히 손을 잡고 고요히 기도를 바치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니었지만, 분주하게 돌아가는 병동 한구석, 소변 줄을 갈아주는 간호사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목

에 낀 가래를 빼내는 석션기의 날카로운 소리에서, 저는 분명히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성당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흐르는 눈물만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도 거룩하다는 것을 저는 성가복지병원 제5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서품을 받아 사제가 된 저는, 이따금씩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차분히 앉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저의 계획 대신에 직접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많은 계획이 취소되고 미뤄지는 2020년, 맘먹은 것도 생각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코로나의 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가복지병원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에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가복지병원 가족 여러분



성가복지병원에서 새 사제 미사 봉헌(가운데_노동준 신부)

분, 짧고 부족한 글을 줄이며, 헬렌 켈러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하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계획이 취소되고, 마음에 품은 뜻도 이루지 못하는 요즘이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2020년 한 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새로운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기를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복지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가복지병원의 수녀님들과 직원분들, 봉사자들과 후원자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는 성가복지병원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알지 못하는 오솔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청하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부족한 글을 줄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 33)

저분은 주님이시다. 당신께 봉사함은 참으로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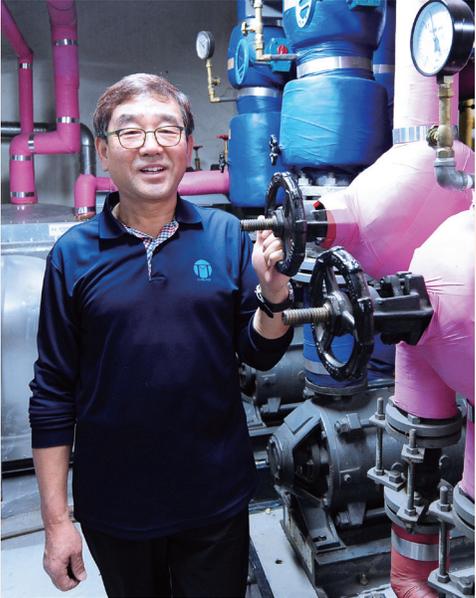
시설과 송재경(대건안드레아)

성가복지병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계기는 사모임에서 성가복지병원에 목욕봉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 우리 일행 4명은 1,3,5주 목욕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일에만 봉사를 했기에 늘 조용하고, 항상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 성가복지병원에 취직을 하였고, 직원으로 지내면서 이곳 생활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특히 점심이 제공되는 화, 토요일이면 많은 외래환자들이 겹치면서 취객들끼리의 몸싸움과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고성이가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한답시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소리치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다 싶어 이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책에서 본 글이 생각났습니다. 한 남자가 성장하면서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남자가 죽을 때가 되자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 우선 나부터 나에게 감사하자! 그래야 남에게 베풀 수 있으니까..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자! 매일매일 새로이 만나니까.. 우리 병원 모든 환우들과 함께하며 감사하자! 함께해야 할 공동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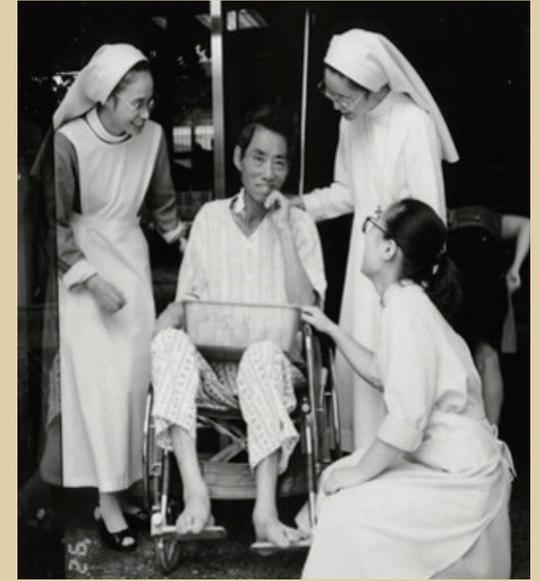
‘끓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혈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가복지병원의 실
천 사항이 아닌가. 그래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자! 아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자!

그래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 8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제 시
작하렵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의 가슴에서 이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요.

무디고 어리석은 저를 이곳 성가복지병원 성소로 이끌어주시어 아프고 외로
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심에 주님께 감
사드립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당신께 봉사함은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

세례성사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환자_민○○(마르첼리노)

가을의 향기가 물씬 짙어지면 가는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약하고 가엾은 영혼들을 생각하시어 복된 이곳 성가복지병원의 모든 병원 관계자분들과 후원자분들, 봉사자분들(코로나19의 여파로 뵈지 못했지만)과 환우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자비로우신 은총 영원히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워도 채워도 늘 모자라며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에 끝내 목말라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물을 찾은 죄 많고 나약한 영혼이 '마르첼리노'라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리며 미처 들려 드리지 못한 이곳 성가복지병원과의 만남과 인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병원 입원과 세례식

이곳 병원에 오기 전 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차 길어져 갈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고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통증과 무력감에 지쳐만 가던 때 이곳 성가복지병원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의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많은 치료비와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갈 곳이 없을 때에 전 병원 간호사님의 '이러 이러한 병원이 있다더라'라는 말 한마디에 의지해 이곳을 찾게 되었고 사회사업과 수녀님과의 상담과 면담으로 입원이 바로 결정되어 곧바로 병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료병원이라는, 그래서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시설들과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듯 우월감에 가득한 병원 관계자들을 떠올리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은 느리고도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병실에서 직접 마주 대하고 마주보는 친절하고 성실한 미소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수녀님들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환자에 대한 애정은 점점 더 저를 풍성하게 복돋아 주었고, 더불어 수녀님들께서 물어보시는 안부와 위로는 저의 고통과 괴로운 감정들을 나누게 하는 따뜻한 공감대가 되어주시어, 감사하게도 저를 위한 기도와 끝없는 다독임으로 저는 점차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께 친절함 웃음으로 안내해 주시고 빵 하나,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병원 관계자분



들과, 비록 시설물들은 최신의 그것들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정성 들여 깨끗하게 관리해 온 티가 나며 반짝이는 복도와 화장실에서부터 작은 물품에 이르기까지, 병원 곳곳에서 병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속속 드러나 보였습니다.

처음 생각하던 것들과 많이 달랐던 모습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즈음 시작된 교리 공부로 인해서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하느님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목실의 배려로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이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례성사를 받는 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축하의 인사말과 예행연습 때 했던 걱정들이 무색할 만큼,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해주신 노력과 분에 넘치는 관심으로 무사히 세례예식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하느님의 자녀로 소멸되지 않는 영적 표식을 얻게 되어 ‘마르첼리노’라는 세례명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세례식을 끝내고 첫 영성체에 저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빌고 또 빌게 되었습니다.

첫 영성체와 그 후

세례성사 후에 첫 영성체를 한 후 첫 봉성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신경 써주시며 저를 위해 수많은 기도와 묵상, 교리 공부 역시 당신께서 직접 기꺼이 맡으시고 때로는 진솔한 상담을, 때로는 절망에 빠져 불만 어린 투정을 부릴 때에도 묵묵히 받아만 주셨던 분,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어미 새가 부지런히 아기 새에게 먹이를 날라주듯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날라다 주셨고 더불어 간식까지 물어다 주셨던, 저만의 수호천사님이던 김에즈라 수녀님이 봉성체를 집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봉성체를 모시는 거라 조심스

럽고 혹여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펼쳐놓은 기도문을 앞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당시에 새삼 실감 나지 않아 첫 봉성체를 끝내고 묵상과 기도를 드리며, 두 번 세 번...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횟수가 거듭날수록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수난을 조용히 상상해보았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극한의 고통에 빠진 그 순간에도 당신을 죽이라는 자들마저 용서하시며 하느님께 온전히 몸을 맡기신 예수님과 그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억압과 수난, 탄압에 맞서 싸운 수많은 순교자분들과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수없이 많은 증거자분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그리스도께 자신의 평생을 바쳐 신앙을 지켜온 분들을 지나 이제야 나에게 오셨구나....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이들의 피와 눈물, 환희와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온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제야 봉성체의 무거움과 엄숙함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식구 분들께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사랑과 돌봄, 배려와 격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기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라는 주님의 꾸지람으로 여기며 비록 신체의 부자유와 고통에 굴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또한 성가복지병원의 모든 식구 분들에게도 주님 안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약하고 병든 자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신 예수님처럼 ‘큰’ 사랑의 병원이 되기를 기원 드리며...

체험 나눔

* 개원 30주년을 맞아 20년 근속상을 받으신 간호사 박해선님이 성가복지병원 체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간호사_ 박해선(에디터)

이곳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버스 안에서 오늘도 무사히를 되뇌며 출근을 한다.
 첫 출근 날도 그랬다. 지금도 똑같이 되뇌인다.
 환자분들, 동료 직원, 봉사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매일의 하루가 20년 근무가 되었다. 모두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안다.
 나의 가족,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20년을 큰 탈 없이
 무사히 근무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내가 성가복지병원에서
 체험한 하느님 사랑이라 생각한다.



인간적 부족함, 한계를 느꼈던 순간

무수히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입원을 하여 서서히 회복하면서, 설사도 멎고,
 걸어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퇴원이다.
 한때는 “술 드시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나?”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내가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판단만 했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했던 체험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나에게 감사한 체험이다.
 여러 삶을 간접 경험해 보면서 삶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생활하게 되지만,
 성가복지병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이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성가복지병원은 어떤 의미로 변화되었나?

근무 초기 성가복지병원은 내가 익혀야 되는 근무 매뉴얼, 내가 극복해야 되는
 여러 인간관계에 한정된 의미였다면, 지금은 며칠 쉬면 궁금해지고,
 근무하면서 같이 웃고 말하고 싶은 친한 이웃이 되었다.
 “같이 커피한잔 하실래요?”가 부담 없이 나오는 나의 이웃 성가복지병원이다.

'최고의 레스토랑 수녀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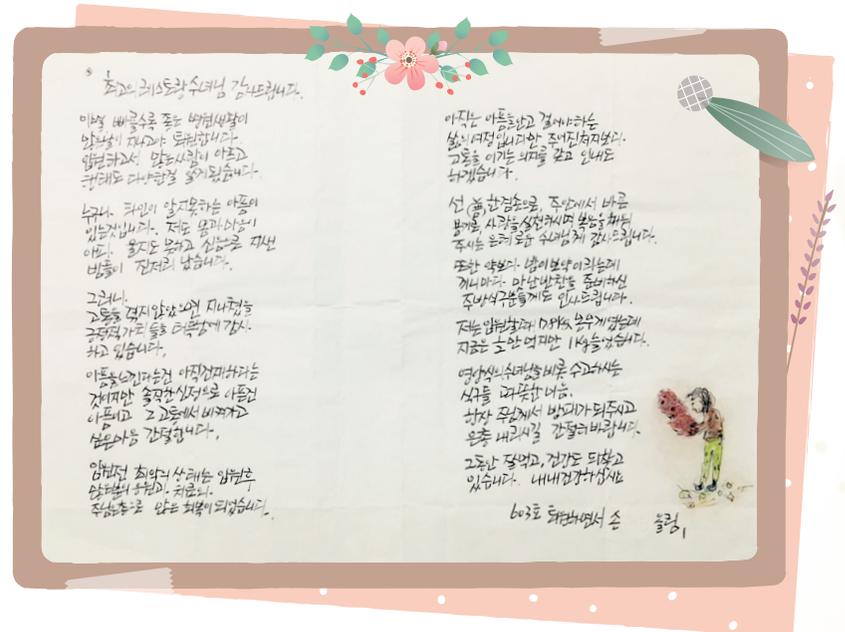
이별, 빠를수록 좋은 병원생활이 많은 날이 지나고야 퇴원합니다.
 입원하고서 많은 사람이 아프고 형태도 다양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타인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몸과 마음이 아파 울지도 못하고 신음으로 지낸 밤들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지나쳤을 긍정적 가치들을 터득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건 아직 견재하다는 것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아픈 건 아픔이고,
 그 고통에서 비켜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입원 전 최악의 상태는 입원 후 많은 분들의 응원과 치료와 주님 은총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은 아픔을 안고 걸어야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만
 주어진 처지보다 고통을 이기는 의지를 갖고 인내하겠습니다.
 선한 겸손으로 주님 안에서 바른 용기로 사랑을 실천하시며,
 복음을 채워 주시는 은혜로운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보다 밥이 보약이라는데 거기마다 맛난 반찬을 준비해 주시는
 주방 가족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입원할 때 몸무게가 78kg이었는데,

지금은 1/2만 먹지만 1kg이 늘었습니다.
 영양식을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따뜻한 마음,
 항상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잘 먹고, 건강도 되찾고 있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603호 퇴원하면서 손○○ 올림



성가복지병원에서 힘쓰시는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께...

+ 평화를 빕니다.

서품을 받고, 꼭 가서 첫 미사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찾아뵙고 미사를 드리지 못해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 수녀님들과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사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일선에서 환자와 마주하시는 수녀님들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성 기간 동안 좋은 사도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회_ 김현직 토마스 신부 드림



제가 본 그 사랑이 제 안에서도 커져나가길

5병동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실습하면서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일전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순교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손이라면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겠구나! 그리고 조금씩 약해져가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사 선생님과 병원 사이에서 쉽지 않으실 텐데도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시는 모습을 통해 감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비록 지금 당장은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언젠가 깨달게 될 이곳에서 제가 받은 선물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가감이 서투러 이제야 조금씩 환자들이 눈에 보이고,
이제야 조금씩 선생님들의 일하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떠나게 됨이 많이 아쉽네요.
생각으로 하는 어떤 말과 사랑도 헌신적인 행동 안에 있는 사랑보다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본 그 사랑이 제 안에서도 커져나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1테살2,20)

2020.1.1. 예수회 수련자_ 김광준 돈보스코 드림

5병동 호스피스 간호과 선생님, 수녀님, 학생 자매님께...

안녕하세요. 이기수 도미니꼬입니다. 처음 실습 시작 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저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선생님들과 함께
환우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서툰 점도 많지만 참아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또 분
명하게 도와주신 점도 감사드려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둔 형
제, 자매님들을 돌보며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수도 생
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저의 계획, 방식을 놓지 못하는 저도 돌아보게 되었
고, 저 자신에게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음도 발견했지요.

세상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 몰라도 5병동은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저도 기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선생님들이 환우 분
들을 돌보던 그곳에 함께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
요. 감사합니다.

2020.1.1. 예수회 수련자_ 이기수 도미니꼬 드림

성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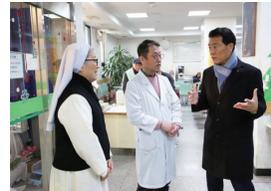
1월



01. 무료급식소 떡국 나눔



02. 새해 미사봉헌 & 시무식



03. 성북구청장
성가복지병원 방문



04. 봉사자 감사선물 전달



14. '2020 소원나무'
새해 이벤트 당첨자 추첨

2월



01. 이문동성당 빈첸시오회
'사랑의 붕어빵 나눔'



07. 새사제 미사봉헌



07. ASAS서울외교대사부인
협회 모로코, 코트디부
아르 대사부인 후원방문

성가 소식

2월



09. '세계 병자의 날' 가톨릭 신문 성가복지병원 소개



11. '세계 병자의 날' 환자 선물 전달

공지사항

- ◆ **진료 중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으로 **2월25일(화)~3월23일(월)**까지 진료가 없습니다.
- ◆ **병원 방문시 마스크 필수 착용**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원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 **입원환자 면회제한**
오스피스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당분간 전면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진료중단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한달 병원진료 중단)



11. 송천동 성당 '사랑의 복주머니' 모금액 일부 후원



11. 가톨릭뉴스 성가복지병원 소개

3월

공지사항

- ◆ **진료시작 안내**
3월 25일(화)부터 외과, 1내과, 2내과 등 진료과 진료 시작합니다.
※ 진료사 등연동등 재출 바랍니다.
- ◆ **병원 방문시 마스크 필수 착용**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원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 **입원환자 면회제한**
오스피스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당분간 전면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진료시작 안내 (외과, 1내과, 2내과)

4월



07. 우편으로 보내주신 헌혈증서

5월



05. 오마이뉴스_성가복지병원 기사



08.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



19. 자양동성당 교우 비누 후원



30. 한강성당 쌀 후원

6월



04. 신내동 성당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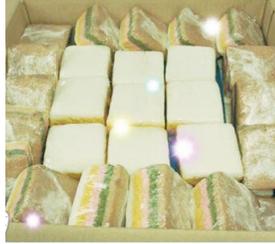
17. 강주원 의원장&가톨릭대학교 의과과 2학년_비대면 온라인 만남 (의료현장 간접체험)

성가 소식

8월



07. 결혼식 축하 쌀 화환 기부



08. '첫 돌' 기념 떡 기부



11. 세레스식(호스피스 환자 1분)

9월



17. 도서신청 이벤트



22. 성북우체국 추석맞이 후원물품 전달

10월



15. 쌍둥이 남매 '사랑의 기부'



25. 건설근로자 공제회 후원금 전달



26. 추석선물 나눔

10월



15. 남촌재단 의료기기 후원(STRETCHER CART, 비접촉 열화상 카메라)



20. 30주년 퀴즈 이벤트



28. 강원도 화천 농장 '김장재료 후원'

11월



14.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후원방문



18. Stay Strong 캠페인_코로나19 극복! 릴레이 참여



19. (재)이승엽 야구장학재단_덴탈마스크 후원



24. 30주년 퀴즈이벤트 당첨자 추첨



25. 서울아산병원 심장검사팀_침구류 후원



27. 성신여고 2학년숙반 학생들_그림재능기부

12월



1. 직원 마니또 뽑기



07. 석교상사&이승엽 야구장학재단 후원금·마스크 기부



10. 소원나무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선종 소식

주님! 김현연 앤젤 수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 김현연 앤젤 수녀님
(향년 71세)

입 회 1970.05.09
경 원 1971.08.15
작 복 1974.12.08
첫 서약 1976.02.28
종신 서약 1981.02.28
은 경 축 2001.02.21
선 종 2020.08.15

성가복지병원 영양과에서 함께해 주셨던 김현연 앤젤 수녀님께서 2020년 8월 15일 병환으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 감사한 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영양과 최복자, 강정옥

간호과 이 마르틴 수녀

법인사무국(후원회) 이 효임골룸바 수녀

※성가정의 은총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

사랑나눔 & 무료진료 30년의 기적

성가복지병원에 후원금과 물품 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자 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후원자 명단



2020년 신규후원자



2020년 물품후원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인들을 위한 미사 & 기도 봉헌

후원자, 봉사자 분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아침·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1:1채팅창, e-mail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sgbokji.or.kr/>
카카오톡 채널 https://pi.kakao.com/_xnzFqT
e-mail bobinhuwon502@daum.net

2019년 환자 진료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19년	958	30,571	31,529	11,449	102
1990~2019년	28,353	590,861	619,214	682,126	3,207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3,050,144	사업비	657,258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287,445	인건비	2,251,592
		관리운영비	344,312
		잡지출	1,784
기타 수입	94,237	재산유지조성비	176,880
계	3,431,826	계	3,431,826

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직접 방문/홈페이지 통해 신청서 작성 ▶ 금융결제원에 송신 ▶ 매월(5일, 15일, 25일) 이체하는 방법
- 지로: 지로 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 시: 지로번호 7529458
- 온라인 계좌이체: 후원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후원하는 방법

성가복지병원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17-25-0001-379
 - 신한은행 140-000-247209
 - 우 체 국 013474-01-000253
 - 우리은행 048-068235-01-015
 - 기업은행 006-000141-04-010
 - 하나은행 289-810001-70404
 - 신 협 01168-12-000238
 - 하나은행 172-890000-39004
 - 농 협 051-01-184347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문의사항: 후원회 전화 940-1501, 1502 메일 bobinhuwon502@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